

[우리가 몰랐던 공자3]

졸저 《10대와 마주하는 인문고전_공자, 사람답게 사는 인의 세상을 열다》(이하 ‘10대와 마주하는 공자’) 출간을 앞두고 4회에 걸쳐서 여성, 청소년, 약자, 교육에 관한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시리즈 제목처럼 졸저 《10대와 마주하는 공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미지의 논어 읽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공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몰랐던 공자와 논어의 세계를 보여주고, 뻘하고 한가한 논어 읽기가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논어의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예컨대 ‘학문의 즐거움’을 오랫동안 상징했던 경전 《논어》의 첫 구절. ‘학이시습지’로 시작하는 구절은 오히려 ‘학문의 괴로움’을 솔직히 말한 것입니다. 학문을 하면 세상의 냉대를 받고 지독한 외로움에 빠질 수 있고 신세를 망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 하죠. 학문하는 사람이 고립되지 않는 방법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학문의 즐거움’과 ‘뜻을 함께 하는 벗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로마신화의 피그말리온처럼 20년 가까이 《논어》를 읽으며 어제는 살 한 점음, 오늘은 뼈 한 조각을 붙이며 신격화되고 박제된 공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인간 공자로 되살리려는 무모한 시도를 내놓기에 몹시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3장. 공자의 공부법

※ 나는 열다섯에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 《논어》, 「위정4」

공자는 어쩌서 공부를 잘 했을까?

공자는 공부로 세상을 바꾼 사람입니다. 공자의 공부에 뜻을 함께 한 제자들이 중국 곳곳에서 활약하며 정치문화를 바꿨고 학문전통까지 만들었으니까요. ‘공부’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준 이후로 중국의 뜻 있는 젊은이들이 모두 공부를 했으니 공자야말로 공부의 아버지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공자 스스로도 “인적이 드문 마을에서도 나만큼 성실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처럼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논어》, 「공야장」 편)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공자에게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고 공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공자는 ‘공부의 기술’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죠. 이것을 우리는 ‘학습 동기’라고 부릅니다. 공부는 마음이 하는 것이니까요.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나요? 공부를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고, 이 공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모르고, 공부를 해서 무엇에 쓸지 알지 못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거나,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거나,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순간 공부가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성취한 직업이기에 담당해야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한 흑인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귀가하다가 경찰이 도둑으로 오해해 체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대통령

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경찰의 멍청한 행동’ 이었다고 공개 비난을 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였던 경찰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동네일에 참견하지 말고 빠져있어 달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바마 대통령의 ‘맥주 만남 초청’으로 화기애애하게 풀렸지만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업 경찰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보기 좋았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지 직업이나 학업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시험 합격 점수에 도달해서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자격을 공부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직업상 알게 된 기업이나 국가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을 ‘내부고발’ 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기관의 비리는 무척 은밀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가 어렵고 ‘내부자’ 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내부고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부고발을 한 사람은 ‘영웅 대접’ 을 받습니다. 한편 기업이나 정부 내의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도 집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내부고발자가 영웅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드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는 공자와 제자 자로, 염구의 대화에서 꾸준히 보입니다.

“큰 신하(큰 일꾼)란 올바른 방법으로윗사람을 설득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표 내고 돌아갑니다.” - 《논어》, 「선진」 편

*위태로운데도 붙들지 아니하고 넘어지는데도 붙들지 않는다면, 장차 저 재상을 어디에 쓰겠느냐?
- 《논어》, 「계씨」 편*

“군자는 기계 부품이 아니다”(《논어》, 「위정」 편)라는 말처럼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마치 별처럼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어려운 공부를 해서 관점사 같은 선망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윗사람의 부당한 명령에 굴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법농단’ 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요즘 세대에 ‘공부’란 무척 의미심장한 화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부할 기회를 얻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지 생각한다면 공부로서 보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공부한 사람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내부고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공자가 말하는 공부의 우선순위

우리가 《논어》를 읽으면서 그 말이 담백하면서도 뜻이 깊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자가 말을 잘 해서가 아니라 실천이 바탕을 이룬 말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실천이 밀받침되지 않은 말을 인정하지 않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 하는 사람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공자 학당의 전통이었습니다. 공부에서도 최우선 순위는 ‘행동’ 과 ‘실천’ 에 관한 공부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집에 오면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공손하며 삼가고 미덥게 하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친해야 하니, 그렇게 실천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글공부를 한다.” - 《논어》, 「학이」 편

“너희가 많이 배워 지식을 넓히고 예를 실천함으로써 지식을 매듭지을 수 있다면 아마도 학문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논어》, 「안연」 편

그렇다면 공자에게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천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의 내용이 행동으로 반영되려면 공부가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약한 이를 도와주고 강자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정의라고 공부했다면 일상에서 공부 내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공부와 반대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야 하죠. 이 과정은 얼핏 보면 옛날 선비나 할 만한 구식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적 갈증이 심해서 동서양의 철학자와 작가를 탐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역시 공자와 《논어》입니다. 공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논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저는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와 논어의 덕입니다. 내 안에 쌓은 덕은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자의 공부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과 행동을 나눕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보여준 인상이라든지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관련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야 알 수 있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짧은 순간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죠. 이럴 때 공자의 실천 우선 공부법은 좋은 평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이 공부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공이 물었다. “제자들 중에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안회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배우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찍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가 없고,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 《논어》, 「옹야」 편

애공과 공자의 대화는 당시 사람들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공자가 말한 공부는 어쩌면 매우 낯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공부’와는 왠지 달라 보이니까요. 저는 공자의 공부법을 보는 청소년들이 ‘공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넓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공부니까요.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지만, 그 결실은 매우 많은 사람이 나누는 점에서 ‘공공자산’입니다.

프로게이머에게는 게임이 공부이고, 축구선수에게는 축구가 공부입니다. 축구선수는 매일 축구 연습을 하는데, 그것도 공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축구선수는 매우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월드컵 같은 큰 대회에서 성과를 냄으로써 국가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학교 시험을 잘 치기 위한 공부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는 공부의 하급 기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